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과제명	개성을 녹이다		
참여자	성명	소속	학번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지도교수 의견	브랜딩이 트렌디하지만 특색있으며, 슬로건이 MZ세대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짐. 의상 자체도 특유의 개성과 완성도가 엿보이며 이외에 기타 아이템, 명함, 로고 디자인과 마케팅 과정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일관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브랜딩 될 만한 충분한 기획이었다고 판단됨. (소속) 패션디자인 (성명)		

1. 도전 과제 내용

학기 동안 새로운 브랜드를 완성해 내는 것이 목표이다.

핑크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효과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의 의상에 표현한다.

핑크 트렌드의 슬로건을 브랜드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녹여낸다.

각자의 개성을 브랜드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과 협동을 통해 팀워크를 단련한다.

컨셉 지정부터 의상 디자인, 의상 제작, 촬영 기획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브랜드 개발이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마케팅과 웹사이트 제작, 인스타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전체적인 실무적 경험을 한다.

이후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전 과제 수행 결과 및 성과

▶ 공통 과제 수행 결과

	브랜드							
상황	네이밍	컨셉	로고/슬로건	컬러	패브릭	타겟	라이벌브랜드	포지셔닝
완료	○	○	○	○	○	○	○	○
상세	시아	캐주얼펍크	ppt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2023 f/w									
상황	컨셉	컨셉스토리	컬러	패브릭	디자인	실물제작	3D 디자인	촬영 및 편집	웹사이트 및 SNS	포트폴리오
완료	○	○	○	○	○	○	○	○	○	○
상세	학창시절	ppt참고	ppt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ppt 참고

▶ 개별 과제 수행 결과

이름	과제 수행 결과
서	- <시아> 2023fw 의상 스커트 제작 - <시아> 2023fw 의상 자켓제작 - <시아> 2023fw 가방 제작 - <시아> 3D 디자인 - 결과물 취합 후 브랜드<시아> ppt 제작 - 브랜드 <시아> 버추얼디자인 (브랜드 사진편집 등) - 포트폴리오 제작
김	- <시아>브랜드의 텍스트 로고, 메인 로고, 서브 로고 디자인 - <시아>라벨 디자인 행택 디자인, - <시아> 명함 디자인 - <시아> 2023fw 의상 팬츠제작 - <시아> 2023fw 의상셔츠제작 - <시아> 2023fw 기프트백 제작
이.	- 브랜드 컨셉 스토리텔링 설정 - <시아> 2023fw 팬츠 제작 - 촬영 및 스타일링 - 브랜드 SNS 관리 및 개설 - 웹사이트 관리 및 개설

3. 자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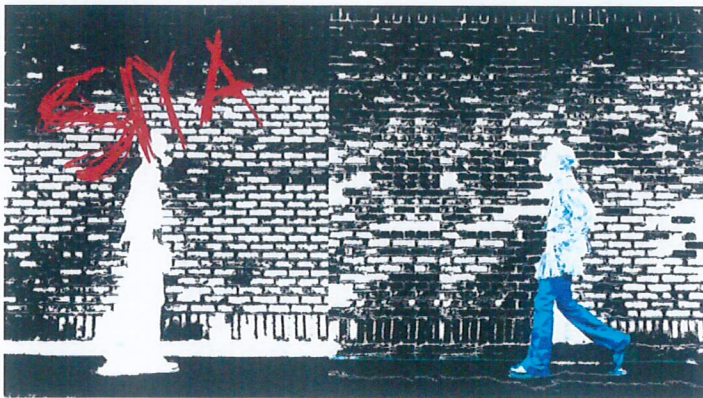
이름	자기평가
서	팀장직을 처음 경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팀원들이 믿고 따라주었기에 목표로 하였던 브랜드 런칭을 달성하였다. 팀원들의 역할을 분배해주며 팀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부족하였던 리더십이 강화되었으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팀원 모두가 각자의 개성이 강하였기에 융화를 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미지 편집 부분에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보며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포토샵 실력을 길러 전공 역량이 강화되었다. 포트폴리오 제작은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도전학기 강의를 수강한 것이 상당히 도움되었다.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도해야하는 강의 였기에 누구의 컨펌 없이 학생끼리 수정보완하여 최대의 능력을 끌어올리기에 적합하였다고 생각한다. 브랜드 런칭 관련 종사자와의 회의를 통해 실무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을 얻어 큰 도움을 얻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 강의를 수강한 것에대하여 만족한다.
김	한 학기동안 팀원들과 함께 브랜드 런칭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많은 회의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의견충돌, 과제 분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팀워크 단련을 할 수 있었다. 동대문시장과 서문시장을 직접 다니며 원단에 대한 이해도, 부자재에 대한 이해도도 쌓을 수 있었으며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었다. 원래 계획했던 완성도에 가깝게 브랜드 런칭을 완료했다. 브랜드 스토리부터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로고디자인, 시즌런칭까지 팀원들이 없었다면 단기간 내에 완성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팀 내에서 나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많은 부분(포토샵 능력, 편집 구성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 내에서 큰 역할을 해내진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분명 혼자 했다면 절대 못했을 기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로 내가 졸업 전까지 키워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여실히 느꼈으며 팀원의 든든한 능력들에 미안하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브랜딩하고 메이킹하고 기획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으며 회의를 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진촬영에 구도와 포즈를 찾기도 하고 브랜딩을 위해 머리를 싸매기도 했다. 이러한 고민들이 결과물이 되어 쌓인 것을 보니 이번학기의 어떤 수업보다 주체적이고 시간을 많은 쏟은 수업이 되기도 했다.

4. 최종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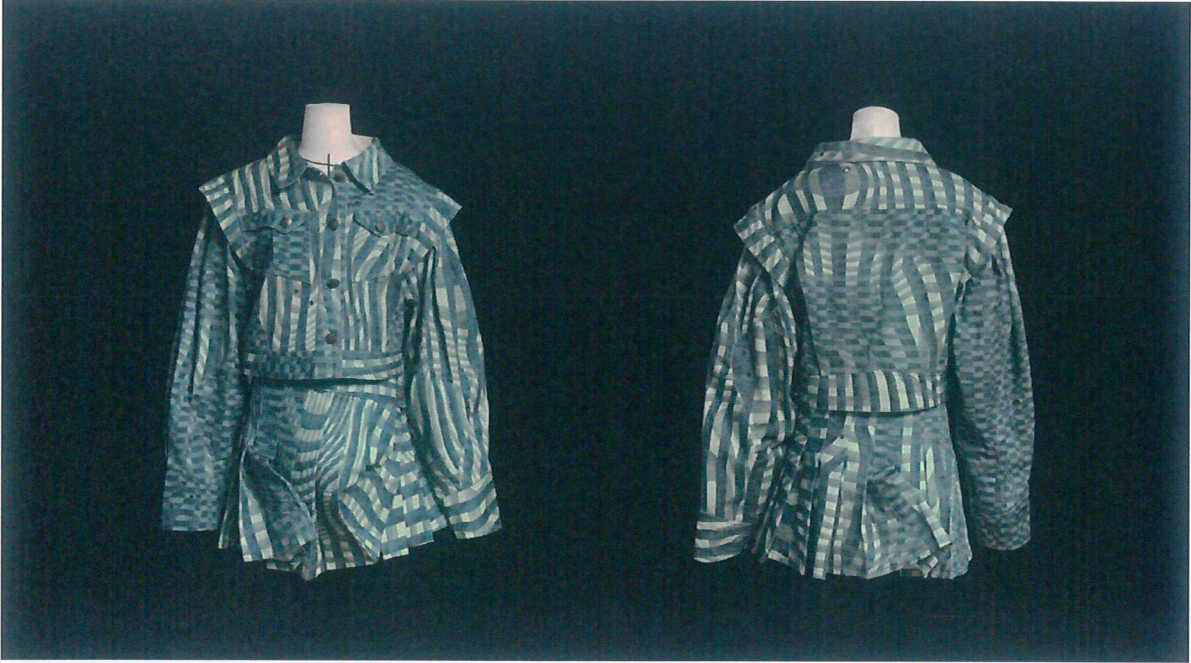
▶ 공통 결과물

캐주얼펑크 컨셉의 브랜드 <시아>는 팀원 전원이 브랜딩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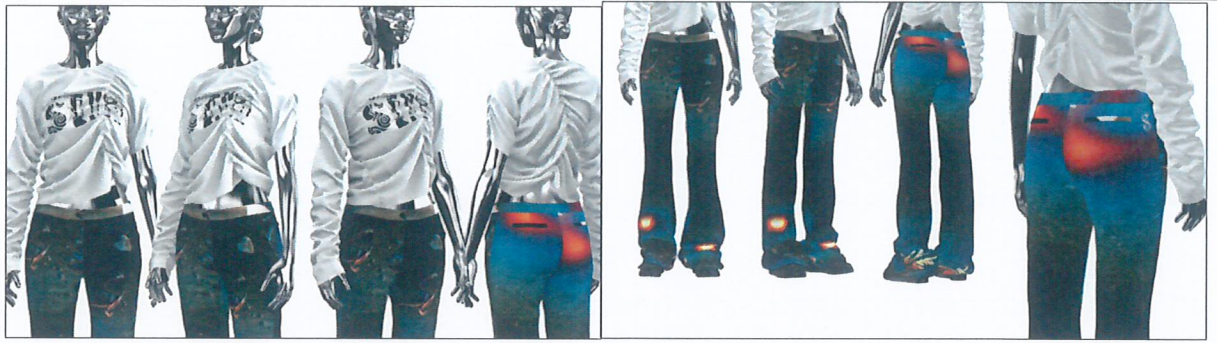
팀원들과 <시아> 2023fw 컨셉을 정한 후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각자 옷을 완성했다
완성된 옷을 촬영후 편집까지 마쳤다.



▶ 개별 결과물

이름	결과물
	'캐주얼 핑크' 라는 컨셉에 맞게 일상적이면서도 핑키한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을 3D로 제작해보았다. 상의는 SIYA(시아) 로고를 믹스매치하여 티셔츠에 프린팅하였으며 소매는 비대칭, 옷 전반에 주름을 볼드하게 잡아둔 디자인이다. 그리고 하의는 프린팅 팬츠로서 DTP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자켓 및 스커트 실물제작 

서 _



△ 브랜드<시아> 3D 디자인



서-

△ <시아> 2023fw 가방 제작

s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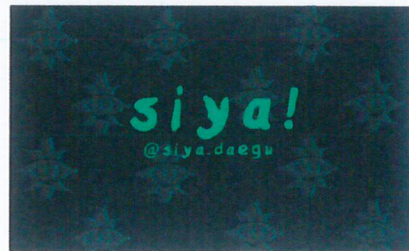
△시아의 텍스트 로고



△시아의 메인로고와 서브로고



△ 시야 행택, 택 디자인



△브랜드 명함디자인

김



△팬츠 제작



△셔츠 제작

김



△ 기프트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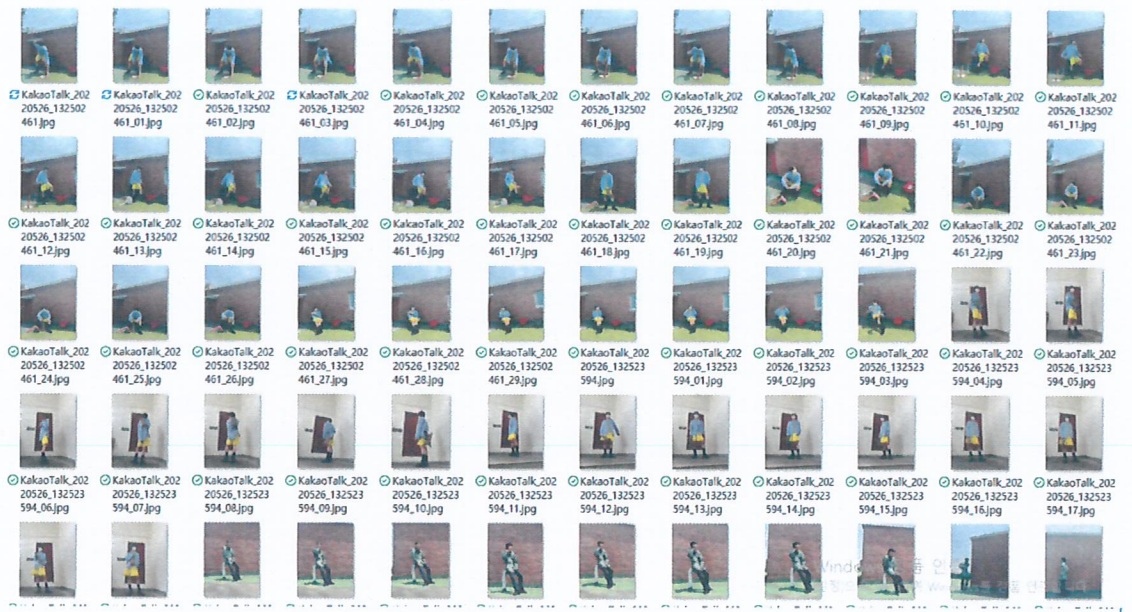
펑크(Rock)는 7080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로서 설명되는 단어이다. 70년대 영국의 시대정신이란 경제 불황에 청년 실업까지 겹친 노동자 계층의 불안과 좌절에 대한 울부 짚음 으로서 태어난 초기 펑크(Rock)은 사운드적으로, 패션 적으로도 하위 문화의 포지션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허무 주의라는 메시지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탓인지 빠르게 영국의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정부적인 정서와 펑크 스타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국 펑크의 대표적인 섹스 피스톨즈가 보여준 패션은 반사회적 저항정신의 메시지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미지로서 곧 펑크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렇게 남은 많은 유산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펑크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동시대 대한민국의 MZ세대로 태어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펑크는 결국 그들의 정신을 빌려 재생산 하는 꼴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펑크는 현 시점의 우리가 갈망하는 것, 억제 당한 경험을 충분히 토해내는 것에 주안점을 뒀야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껏 가장 억압되고 통제 되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기억을 쫓아보니 먼저 사춘기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꿈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때, 우리는 통제되고 억압되는 것이 순리 였고 당연하다는 듯이 꿈을 강요당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10대와 현재의 10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브랜드에 담고자 했다. 시야(視野)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생물이 관찰할 수 있는(각도, 선형, 혹은 지면적) 범위를 뜻한다. 시야는 다양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에서 시작된 10대의 다양한 경험, 취향이 발전되어 '나'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며 단단하게 뭉쳐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로 무언가 가능하기 시작할 즈음 다가오는 대학입시와 주입식 교육은 우리의 시야를 좁고 어둡게 가리며 다양한 진로와 수많은 가능성들을 코앞에서 놓치게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어른들은 우리 세대의 배부른 소리라며 외면하지만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안락 하고도 무책임한 통제 속에서 살던 10대들은 결국 20대가 되어서도 주체를 잃고 방황 하기도 한다. 그것들에게 안녕을 외치고자 See ya! 라는 브랜드 명을 정했다.

△브랜드 컨셉 스토리텔링 설정



△<시야> 2023fw 팬츠 제작



△ 영 및 스타일링



△ 브랜드 SNS 관리 및 개설



△ 웹사이트 관리 및 개설